

광주 여성·가족 행복 도시 만들기

여성가족재단, 올 프로그램 다채 근대 여성 발자취 '두홉길 투어'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 캠프 등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 캠프, 광주 발전에 힘쓰는 지역 여성들의 이야기 책, 양림동 근대 여성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두홉길 투어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과 가족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역사 문화까지 아우르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2011년 설립된 재단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화 실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먼저 재단은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지역 내 스토킹 피해 실태 및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마련, 기후위기 취약 가족 지원 방안 연구,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 분석, 2023 광주성인지표제 제작 등을 진행한다. 또 국립어린이집서비스 질 향상, 전라산업 여성 일자리 실태 파악 및 지원, 가사수당 타당성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각종 자료 수집과 분석에도 나선다.

성인지 관련 예·결산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 점검도 실시한다. 성인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진행하고 성인지 예·결산 컨설턴트 양성을 지원한다.

성평등한 지역사회돌봄 체계를 위해서도 발벗고 나선다.

먼저 아빠의 육아 참여실천과 돌봄 문화 개선을 위해 골든벨, 힐링캠프 등 '아빠 육아 참여' 프로그램



지난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아빠 육아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들.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그램을 기획한다. 또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해 양육 고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양육자 바자회 및 지역 행사 등을 개최해 양육자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플랫폼(광주아이키움.kr) 운영을 활성화·체계화 해 생애주기별 돌봄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관련 플랫폼 기능도 고도화시켜 AI 큐레이션 활성화를 위한 메뉴를 개선하고 돌봄·양육 지원정책 정보 알고리즘 등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젠더 동향 분석을 통한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젠더브리프(연6회), 성별인구 고용동향(연4회), 젠더인포그래픽스(연6회)를

발간하고 여성가족정책포럼·정책개발(연2회)을 활용해 집담회도 열 계획이다. 이와함께 성인지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인제·성평등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처음 선보인 양림동 '광주여성 두홉길' 체험 등 광주여성사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역사문화콘텐츠도 꾸준히 개발해 이어가고 지난해 7월 발행한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빠를 넘어 소금꽃을 피웠다'와 같은 지역 여성사 축적, 아카이빙 구축 등에도 힘쓴다.

뿐만 아니라 여성 가족 문화 공간인 허스토리과 북카페 은새암을 활용해 작가와의 대화, 각종 전시와 프로그램의 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박진연의 문화카페

지난해 가을, 북유럽 4개국의 미술관과 공공 미술현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코로나19의 '그늘'이 남아 있던 주위 미술관에는 예전의 모습처럼 관람객들로 활기가 넘쳤다. 첫번째 방문지였던 핀란드 헬싱키의 아모스렉스 미술관을 비롯해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오슬로 뭉크미술관, 덴마크 국립미술관은 유럽 각지에서 온 인파로 북적였다.

물론 화려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미술관들인 만큼 관람객들이 몰려드는 건 당연할 터. 하지만 2만원 가량의 만만치 않은 입장료에도 마치 백화점의 오픈런처럼 개관시간을 목빠지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부러웠다.

팅의 모네타프로 활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미술 한류의 해'를 선포한 국립현대미술관이 여세를 몰아 올해 미국 구겐하임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한국 실험미술 1960-1970'을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의 미국 현대미술의 거장 '에드워드 호퍼'전과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9월-11월)와 연계한 '사진작가 구분창'전, 국내 국립미술관 최대규모로 기획한 대구시립미술관의 미니멀리즘 대가 '칼 안드레'전 등이 그 예다.

특히 이들 전시에서 눈길을 끄는 건 다름 아닌 국립미술관의 '힘'이다.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 그리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엮어 사립미술관이나 민간갤러리가 다루기 힘든 굵직한 전시를

'논란 속 관장 임명' 시립미술관의 미래는?

그도 그럴것이 상대적으로 지역 미술관들의 '한산한' 전시장 풍경이 떠올라서였다. 전남도립미술관의 무오전이나 광주시립미술관의 이견희 컬렉션 기획전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평상시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하기 때문이다. 미술애호가들이 적은 탓도 있지만 연중 즐길 수 있는 컬렉션이 미흡하다 보니 미술관을 찾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이다.

사실, 요즘과 같은 연말연시는 관람객들을 미술관으로 불러 들이기 좋은 때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는데' 예술이 충만한 미술관 만큼 최적의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인지 여류 방학이나 휴가철도 대목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국내외 유명 미술관들이 신년 기획전을 시작으로 바캉스 기간을 겨냥해 볼록버스터전을 기획하는 건 그 때문이다.

특히 메가 예술이벤트가 맞물린 해는 전시회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어 문화마케팅

기획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광주시립미술관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최근 김준기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 오랫동안 공석중이었던 광주시립미술관의 수장으로 취임했다. 사전 내정설, 전임 직장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주인공이 '소문대로' 임명되면서 신임 관장을 바라보는 지역 미술계의 시선이 뜨겁다. 당장 오는 4월로 예정된 광주비엔날레와의 콜라보와 지난해 개관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활성화 등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의 공립미술관이지만 연간 평균 관람객이 17만 명에 그치고 관람객들을 설레게하는 대표작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립미술관다운 존재감을 보여줄 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논란 속에 지휘봉을 잡은 그가 지역 미술계와 어떤 화음을 그려나갈지... <문화·예향담당국장, 선임기자

유물로 만나는 남아시아 역사와 문화

ACC·호남문화재단연구원, 3월 8일~6월 16일 격주 강좌

남아시아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을 포함한 아시아의 지역이다.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등 어두운 역사를 지닌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도의 타지마할 궁전, 파키스탄의 간다라 양식의 탑과 불상 등 뛰어난 문화 유적, 유물이 산재한다.

남아시아 유물로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아시아 박물관 산책' (남아시아)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아시아문화박물관과 남아시아 각국의 박물관 전시물과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한국과 교류사를 살펴보는 자리다.

강좌는 오는 3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격주 3주 요일 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박물관 문화교육실 4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ACC가 호남문화재단연구원, 아시아인문재단과 공동 기획한 두 번째 강좌다.

먼저 첫 강연은 인하대 최정기 명예교수가 '남아



전득염 원장

시아의 자연환경'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오는 3월 22일에는 부산외대 이광수 교수가 '인더스 문명 이래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어 4월 5일과 19일에는 윤옥봉 아시아중교원장이 '남아시아 종교', 최인선 순천대 교수가 '간다라 미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득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아시아 스투파의 기원과 변천' (5월 3일)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옥순 연세대 연구교수는 '대항생시대의 남아시아' (5월 17일)를 이야기 할 예정이다.

김경학 전남대교수는 '인도 카스트 제도' (5월 31일)를 모티브로 이야기를 나누며,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은 '남아시아와 한국' (6월 14일)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 매력 SNS로 홍보

문체부, 8일까지 4070기자단 모집

지역의 문화 매력을 SNS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할 4070세대 기자단을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K-컬처를 알리는 4070세대 34명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8일까지이며 최종 발표는 2월 13일.

특히 기자단이 전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17개 특별, 광역 시도 거주자 중만 40세-59세인 지원자 1명씩을 '4050 기자단'으로, 만 60세-79세 지원자 1명씩을 '6070 기자단'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4070 기자단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를 비롯해 스포츠, 여행 등 지역 매력 자원을 주제로 취재해 기사를 작성한다.

작성된 기사는 문체부 대표 SNS와 디지털 'K-공감'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블로그 '도란도란 문화 놀이터'에서 확인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로그인만 하면 '독도 입장'

동북아역사재단, 메타버스 '독도체험관' 개관... 앱 출시도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의 역사와 자연환경 등을 알리는 시설인 '독도체험관'을 메타버스 방식으로 최근 개관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에 서울 영등포구로 확장 이전한 독도체험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모든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전시장을 구축한 것이다.

이용자들은 메타버스 독도 체험관(https://zep.us/play/ya0mLR)에 접속하고 캐릭터의 별명을 설정한 후 가상 체험관에 입장할 수 있다.

독도의 자연환경이나 역사에 관한 설명자료 등 영등포 독도체험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

다. 또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방문해 게임을 하면서 독도에 관해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독도체험관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초등학교 저학년용을 위한 증강현실(AR) 콘텐츠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앱)인 '말랑말랑 독도야 뭐하니? AR'도 출시했다.

독도의 자연과 역사 및 관련 인물 등을 16개의 캐릭터로 만들고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제작한 8편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독도 체험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카드를 다운로드받아 출력한 뒤 앱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